전남도 "곡성, 미래 농산업·치유관광 핵심 거점 조성"

김영록 지사, 정책 비전 투어
관광자원 기반 미래산업 제시
생활인구 500만 시대 등 추진
'쪽지 건의' 첫 도입 밀착 소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8일 곡성군청에서 열린 '곡성군 정책비전 투어' 행사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과 제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곡성을 미래 농산업과 치유·레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곡성군청 대통마루에서 열린 '곡성 정책 비전 투어'에서 "곡성은 고부가가치 농업 기반과 함께 섬진강·보성강을 품은 천혜의 생태환경, 대한민국 대표 장수지역으로서의 치유 자원까지 갖춘 최적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조상래 곡성군수,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 진호건 전남도의원,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곡성은 토란, 멜론, 백세미 등 다양한 우수 농산물 육성과 농업의 6차 산업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연간 60만여 명이 찾는 장미축제와 기차마을은 전국의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전남도가 곡성 발전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철 전남연구원 농수해양연구실장은 곡성의 미래 전략으로 △대한민국 가족관광 1번지 △청년이 머무는 생명산업의 땅 △생활인구 500만 시대 달성 △지속가능한 지역 미래산업 육성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곡성의 경쟁력을 살린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이동현 미실란 대표는 "100만 명 이상의 가톨릭 청년이 모이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에 정해박해의 진원지이자 천주교의 성지인 곡성이 순례코스로 포함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장미농가 서용호씨는 "15회를 맞은 곡성세계장미축제를 기반으로 장미를 전남 대표 화훼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품종 육성과 생산 확대를 위한 육묘장 조성, 장미잼·화장품 개발 등 6차 산업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군민들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파크골프장 확대, 2031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곡성 1827 순례길(가칭) 개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2027년은 정해박해 200주년이 되는 해로, 곡성이 세계청년대회 순례코스에 포함되도록 광주대교구와 협의하겠다"며 "스마트팜도 청년 농업의 거점이 되도록 추가 사업 신청 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곡성 정책비전투어에서는 '도민의 현장 소리'라는 이름으로 사전 쪽지 건의 방식이 도입됐다. 현장에서 접수된 제안에 김 지사가 직접 응답하며 도민과의 실질적 소통에 나섰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

1면서 계속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자동화 사업의 경우 첨단 장비 기술에 한정된 실증사업으로, 기존의 인프라 확충이나 물동량 확대와는 거리가 있어 광양항을 거점 전략 항만으로 강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광양항은 포스코퓨처엠·포스코리튬솔루션 등 이차전지 핵심 기업들의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 15m 제한으로 인해 대형 컨테이너선 기항 확보가 어렵고, 하역 효율도 저하되는 등 경쟁력 약화도 여전하다.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항만 정책 결정과 예산 대부분이 부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타 지역 항만은 행정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는 구조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의 전재수 국회의원이 지명된 것 또한 우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미 해양항만수산 정책이 부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출신 장관 임명이 지역 편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해수부 이전이 지역간 대립 구도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광양항 등 지역 항만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자체가 지역 간 대립 구도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광주·전남에는 해수부 이전을 대신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상징적 조치와 함께 광양항의 수심 확보, 스마트 물류 테스트베드 확대, 대형 선박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광양항만 재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황금~율촌간 연결도로 개설, 광양항 준설 등 실질적인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부산에 해양진흥공사와 해수부 산하 기관 등이 위치한 만큼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 행정 기능 통합 등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기능 분산형 이전이나 복수 거점 운영 등 실무 기능의 권역별 분산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광양항의 스마트 물류 테스트베드 확대 시 단순한 기능 확장이 아닌 자율운영 선박 실증, AI 기반 항만 운영 등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트럼프 서한에 '관세 인하' 총력전

美 "8월부터 25% 상호관세" 통보
정상회담 조기 추진 등 대책 부심

대통령실은 8일 새벽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협상 서한'에 급박하게 움직이며 사활을 건 '관세 인하'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보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에서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급파한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남은 24일간 최대한 관세율 인하를 끌어내는 것이며,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 대통령 앞으로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자본금의 감소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5년 7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액을 금 50,000,000원 중 금 4,900,000원을 감소하여 금 45,100,000원으로 하고, 액면가 금 10,000원인 발행주식 5,000주 중 490주를 1주당 금 673,236원으로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의 주주들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본금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9일
주식회사 영진중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산2길 10
대표이사 양지숙

자본금의 감소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5년 7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액을 금 200,000,000원 중 금 26,000,000원을 감소하여 금 174,000,000원으로 하고, 액면가 금 5,000원인 발행주식 40,000주 중 5,200주를 1주당 금 29,054원으로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의 주주들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본금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9일
주식회사 포인스오토메이션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560, 2층(중동)
대표이사 김문기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5년 07월 08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5년 09월 10일까지)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주식회사 인투버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405호
(오룡동, 마루힐아이비씨지식산업센터)
청산인 윤석필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제2항,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의거 발전사업변경 내용의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발전소명 : (주)에너지워터
2. 설비용량 : 8MW급
3. 설치장소
   : 전남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2431번지 [83,440㎡]
4. 주요내용 : 공급전압변경 (22.9kV>154kV)
5. 사업개시 예정일 : 2026년 8월 1일까지
6. 사업 준비기간 : 2026년 8월 1일까지
7.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8. 의견제출 및 열람요청 이메일
   : dasbak86@gmail.com
   · 연 락 처 : 010-8405-6371
   · 열람기간 : 2025. 07. 09. ~ 2025. 07. 15.

2025. 07. 09.
(주)에너지워터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 세 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 자 금 약 정 금 임 대 료 구 상 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 역	구례
인 원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 · · · · · · · · · · · 1부
-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 · 1부
- 자기소개서 · · · · · · · · · · · · · · · ·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 수 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